찾아가는 한의약

케어안심주택 등 지역 자원과 연계, 한의약 건강돌봄 시너지 창출

현장과 행정이 긴밀히 협력할 때,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더욱 빛난다

안산시 통합돌봄과 정소우 과장

안산시는 주민의 고령화가 급격한 지역 중 하나로,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안산시 통합돌봄과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돌봄 모델을 구축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주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 전반에 대한 돌봄을 위해, 안산시 통합돌봄과는 지역과 행정, 현장이 함께하는 비전을 그리고 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산시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진행 당시 안산시의 통합돌봄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보나 지침이 거의 없어 안산시의 특성에 맞게 돌봄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후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을 거쳐 2025년 7월, 통합돌봄과 과장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졌던 만큼, 다시 통합돌봄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많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안산시 통합돌봄과에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통합돌봄이라는 개념은 일본이나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를 참조한 것인데요, 지역사회 자원과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통합돌봄과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해 의료돌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그 중 한 사업입니다.

안산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안산시는 지역 내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다 주민 친화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한의약 자원을 돌봄 체계에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주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는 연 2회 이상 안산시한의사회와 수시 간담회를 통해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15개 한의원이 참여하여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약 65명의 대상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45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한의진료·상담, 생활 습관 개선, 맞춤형 건강관리 등이 있고, 진료 건수는 총 2,700여 건에 이릅니다.

안산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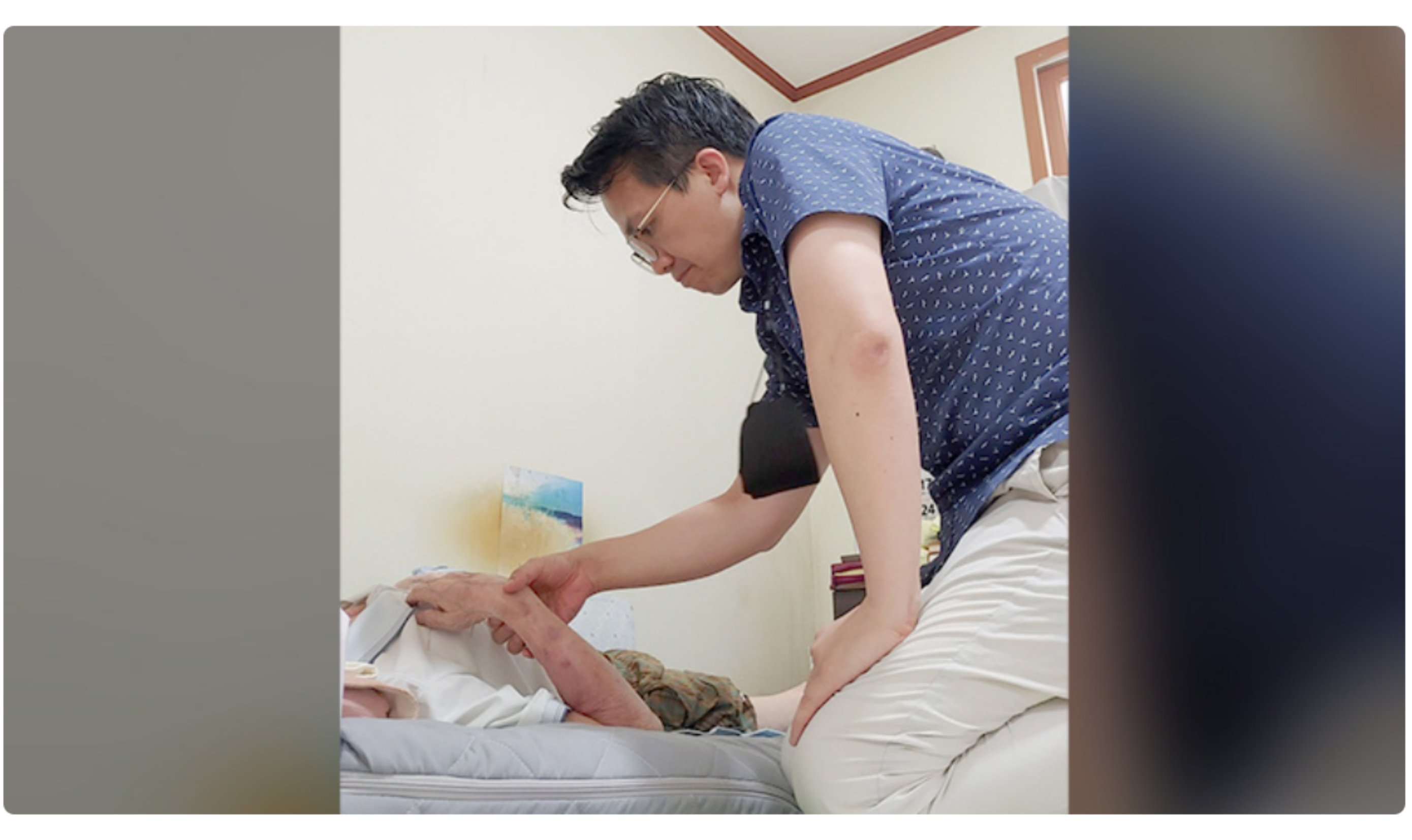
타 지자체와 구분되는 특징으로는, 안산시가 보유한 다양한 사업들과의 연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시에서는 '케어안심주택'이라고 하여 LH와 협업해 만든 어르신 돌봄을 위한 주택이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하신 분들은 복지관과 연계한 돌봄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 주택 내 커뮤니티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안산시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단순 한의 진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거점형 케어안심주택 내 온마을 돌봄사업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산시만의 특징 덕분에 2022년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상을, 2025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지자체 부문 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안산시 한의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담당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서비스를 받은 돌봄 대상자 분들의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안산시 통합돌봄팀 직원들과 함께

한의약 건강돌봄 대상자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였나요?

안산시 통합돌봄과에서 2025년 실시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한의방문서비스 이용자 89% 이상이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특히 통증 완화와 수면 개선 등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아,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으로 생활 전반에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기억나는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처음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시작할 때 참 막막했습니다. 통합돌봄과에서 한의 진료 서비스 제공을 안산시한의사회에 제안한 당시는 '방문 의료'가 아직 낯설던 시기였습니다. 예전에야 의사가 왕진을 하는 것이 흔했지만 요즘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이 필수인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병원을 방문하는 것부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옛날 왕진과 같은 돌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에 안산시한의사회와 공감대가 생겼고,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에 참여할 한의사나 한의원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체계가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한의 진료 서비스를 받으신 대상자들이 생활에 활력을 찾으시는 것을 볼 때에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관절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셨던 어르신이 침 치료로 통증이 완화되고, 결국 자력으로 이동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사업을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안산시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을 확대하고, ICT·AI 기반 모니터링과 결합해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한의약 서비스와 재활, 방문의료, 약사복약 서비스를 함께 묶어 의료 통합돌봄 패키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지자체 담당자나 보건기관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역 한의사회와의 협력 구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도와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민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지역 의료인입니다. 현장과 행정이 긴밀히 협력할 때,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